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 보육선도도시 '명성'

공공형 어린이집 6곳 재선정 도내 가장 많은 14곳 운영 보육서비스 질 날로 높아져

광양시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광양읍 5개소와 중마동 1개소 등 총 6개소가 재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보육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재선정된 어린이집은 광양읍에 자연어린이집과 파랑새어린이집, 나누리어린이집, 편한어린이집, 다은어린이집 등이며 중마동에 있는 해오름어린이집이다.

이번 재선정으로 오는 9월부터 3년간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매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역점사업인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이 중 하나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를 추진해 왔다.

현재 전남지역에 총 76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보육선도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대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오는 2022년까지 35개소로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만 6개소를 확충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첫 삽 떴다 옛 광양역사 부지서 기공식... 2020년 10월 개관

전남도립미술관 기공식이 지난 3일 광양시 광양읍 옛 광양역사 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복 광양시장, 이용재 전남도회의의장,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 경과보고에 이어 기념사, 축사에 이어 착공버튼 점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은 경전선 폐선부지인 옛 광양역사 부지 일원에 450억원이 투입돼 2020년 10월 문을 연다.

연면적 1만1547㎡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전시실과 수장공간, 사무·교육공간을 비롯해 어린이 체험실과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전남의 예술과 철학이 담긴 다양한 미술 작품을 선보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난 3일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서 열린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기공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이용재 도의회 의장, 정현복 광양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양시는 옛 광양역사 부지 앞 폐창고를 매입해 시민컨벤션센터와 지역예술인의 방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중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축사에서 "도립미술관에는 광양시민의 원대한 꿈과 열망이 담겨있다"며 "도립미술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전남 미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지난해 살림 규모 9348억원

지방재정 운용결과 공개 전년보다 800억원 증가

광양시의 2017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전년 대비 800억원이 증가한 9348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월 31일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2017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용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재정공시는 재정 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인 '공통공시'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민의 관심사항인 19개 사업에 대한 '특수공시'로 구분된다.

공통공시에는 결산규모와 부채, 지방세, 공유재산 등 10개 분야 59개 항목이

들어 있으며 이중 1개 분야 3개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결과를 확정 후 통보가 되면 10월 중 수시공시를 할 예정이다.

공개된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63억 원이 증가한 1466억원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4만원이다.

특히 지자체 채무현황에서는 시가 지난해 기존의 채무액 256억원 전액을 조기에 상환한 건전 재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의 살림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증가한 예산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년 8월말에 전년도의 재정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공시해 시민 누구나 시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시내용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공시 책자와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메인화면 상단의 '분야별정보-재정정보-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경찰, 탈북민 위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광양경찰서(서장 박상우)는 탈북민의 개인정보보호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주차 때 차량에 남겨두는 핸드폰 연락처 대신 '안심번호(가상 전화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 앱' 설치와 '안심주차번호판'을 배부, 탈북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과 신변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번호(가상번호)' 서비스는 핸드폰 앱스토어에서 MOVA 앱을 다운 받아 회원가입을 하면 무상으로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고 무제한 번호 변경이 가능해 핸드폰 번호 유출을 전면 차단 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탈북민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대다수 탈북민 운전자들은 주차시 또는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차량 전면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두는데 남겨진 연락처로 인해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이 노출되거나 각종 범죄 표적이 될까봐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광양경찰서에서는 탈북민의 신변보호와 안전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모바 앱' 설치 및 '안심주차번호판'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광양경찰서가 탈북민의 개인정보보호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 앱'을 설치한 '안심주차번호판'을 배부했다. 아래는 주차 때 차량에 남겨두는 핸드폰 연락처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안심번호판. (광양경찰서 제공)

탈북민 이모씨는 "주차공간이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 핸드폰 번호 노출이 꺼려져 차량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 관리사무소와 마찰을 빚기도 하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는 날에는 누군가로 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바깥 출입을 못했던 적도 많았는데 '안심번호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함과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광양경찰서는 앞으로도 탈북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과 신변보호를 위해 더 많은 차별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본정마을 등 5개 지구 선정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마을만들기 분야에 5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로는 광양읍 본정마을, 옥룡면 남정마을·갈곡마을, 진상면 삼정마을, 진월면 대리마을로 2년간 국비 70%를 포함한 각각 5억원씩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문화와 복지, 경관·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태보전을 통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모 신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지역주민과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농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의 열악한 기초생활과 문화·복지, 경관·생태를 크게 개선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기초생활 거점 육성 공모사업 봉강·다압면 선정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초생활 거점 육성' 공모사업에 봉강면과 다압면 2곳이 최종 선정돼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주민이 주도가 되어 배후마을에 편의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이뤄지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108개 사업이 신청한 가운데 전남도의 1차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차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선정된 봉강면과 다압면에는 2019년부터 3년간 국비 56억원을 포함한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 해당 지역에 각각 40억원씩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봉강면은 '약자지역 신명나는 청정 봉강'이라는 비전아래 지역 인근에 비봉복지센터 증축과 비봉광장 조성, 신활력프로그램, 경관길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다압면은 '精(정)通(통)한 다(다)압면'이라는 비전아래 정담센터 조성과 복합문화행정타운정비, 안전보행로 조성, 정담은 자연놀이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이뤄진다.

한편 광양시는 광영동과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옥룡면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5개 지구에 오는 2021년까지 국비 227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25억원을 투자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 412-2800